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신문사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천변 2길 6번지

2019년 1월 16일 수요일 (음 12월 11일) 제221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새만금추진지원단 기업유치 본격화

도, 새만금유역 수질대책 평가 대비 대책 마련 집중

전북도 임민영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올해 새만금 분야 주요 업무계획으로 새만금 투자유치 본격화와 새만금 유역 수질대책 평가대응에 집중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66만㎡(20만평) 확보분에 대해 既 입주 계약 체결기업 등에게 사용허가하고 국내기업 임대료율을 인하하는 등 투자여건을 개선, 투자유치 유관기관과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및 주요 타깃기업을 발굴, 기업유치를 본격화 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2단계 수질개선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 새만금 유역 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 2020년 수질개선 종합평가에 대비하여 대응책 마련에 집중한다.

새만금 투자유치 여건 개선으로는 주요 SOC 구축을 위해 새만금 동서도로 및 남북도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를 적기 구축하고 신항만 부두 건설을 위한 진입도로와 호안공사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새만금 사업지역 내 생활 공업용수 공급 배수지 건설을 위해 군산시 옥구읍에 3만4,000㎡를 2022년까지 설치한다.

더불어,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2018년 2018년 33만㎡(10만평) 기(既) 확보분과 2019년 33만㎡(10만평) 추가 확보분을 既 투자협약 체결기업 등에게 사용허가 하고 국내기업 임대료율 기준을 5%에서 1%로 인하 등의 내용이 담



'내년 아직 어색한 경제구호'... 올 35사단 첫 신병 입소식

2019년 35사단 첫 신병 입소식이 15일 일출군 35사단 김범수관에서 실시된 가운데 입영장병들이

경례를 연습하며 어색해 하고 있다.

신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4월 1일 예정) 등 투자여건을 개선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주요 타깃 분야를 재생에너지(태양광 기자재 등), 4차 산업(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등), 미래형 자동차 부품소재 분야 등으로 설정하고, 유관기관(새만금청, 지자체, 코트라, 입주기업 등)과 협력하여 투자설명회(국내 4회, 국외 2회) 및 새만금 현장초청 등 기업 유치를 본격화한다.

관광레저용지 민간개발을 본격화하여 관광명소를 조성하는 등 관광 문화

인프라 구축 및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를 추진한다.

신시~아미 관광레저용지는 민간사업자인 새만금관광레저(주)에서 관광 기반시설(주차장, 공원) 및 숙박시설(호텔 200실) 등을 2023 새만금 세계 팸버리 개최 이전 완료하기 위해 개발 기본계획 수립중(2018년 10월~2019. 10월)에 있다.

국립 새만금박물관은 새만금개발청에서 건립부지 토지 매입을 상반기 내에, 군 관리계획 변경용역 등 행정절차를 연내에 완료하여 2022년 상반기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이다.

전북도는 이와 더불어 게이트웨이 등 관광레저 1, 2지구에 대규모 민간 투자를 위한 본격 유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밖에, 공공주도 선도사업인 국제협력용지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신속 추진,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해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수질개선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정부의 2단계 수질대책 종합평가와 관련 신규 사업발굴 등 도차원의 대책 마련에 집중한다. /김진성 기자

“도내 체육계에 발생한 불법·부당행위 뿌리뽑을 것”

전북체육회, 스포츠인권익센터 운영 등 '가혹행위·(성)폭력 근절 실행 대책' 추진

전북체육회는 대한체육회에서 15일 발표한 '가혹행위 및 (성)폭력 근절 실행 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체육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부당 행위를 뿌리뽑을 수 있도록 자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한체육회는 ▲성폭력 가해자 영구제명 및 국내·외 취업 원천 차단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조적 개선방안 확충 ▲성폭력 조사

및 교육을 외부 전문가에 위탁 실시 ▲선수 육성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며, 정부·시민사회 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즉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성 범죄 등 스포츠인권익센터(인권예방 센터)를 설치·운영한다.

투명성을 위해 외부인사를 채용하거나 외부 전문인력을 위촉, 신고담당자(전문상담사)를 지정하기로 했다.

또 전북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전수조사를 실시, 외부 전문인력에 의뢰해 설문조사와 면담 등도 진행한다.

아울러 지도자와 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집체교육 및 찾아가는 인권교육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전북체육회는 스포츠인권 강사 간담회를 비롯 23차례의 스포츠인권 교육(인권 연합교육 9회·찾아가는

인권교육 14회)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학교에서 순회 운동코치(지도자)를 채용할 경우 적격자를 선별해 낼 수 있는 등의 제도적 절차도 마련한다.

또한, 각종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는데도 보고하지 않고 묵인·방조하는 경기단체에게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전북체육회 관계자는 “어려운 고동 속에서 용기를 내어준 피해 선수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을 전하며 선수들이 마음놓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사 고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전북 인력의 미래를 열고자 하는 전주매일신문사가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구 분	모집분야	자격 조건
지역주재기자	익산 00명	취재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여·나이제한 없음

- ▲ 접수기간: 2019년 1월 31일까지
- ▲ 제출서류: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접수처: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서노송동) 문의 063-288-9700(본사 총무팀)

전주매일

새 유치원 못찾은 원아 253명

전북지역엔 7명 못찾아... 도내 폐원 허가 사립유치원은 5곳

아직도 새로운 유치원을 찾지 못한 폐원 사립유치원 원아가 전국적으로 253명이며, 전북도는 7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폐원을 신청·검토한 사립유치원은 116곳으로 파악됐다.

15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5곳에 대해 폐원 허가를 했고, 이중 7명의 원아가 아직 등록 대기 중이거나 학부모 연락이 안된 경우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폐원이 추진되는 사립유치원 89곳의 원아 중 89.2%가 다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등록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러나 253명(7.8%)은 아직 미등록 상태다. 처음학교로 마감 이후 추가 모집이 진행되면서 새 유치원을 찾지 못한 경우다. 이는 조사 당시 학부모 연락이 안 돼 누락된 경우도 포함됐다. 올해 들어 폐원을 추진하는 유치원도 새로 원아 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여전히 미등록 상태인 253명은 다른 유치원에 등록 대기 중이거나 학부모 연락이 안 된 경우라고 설명했다. /장은성 기자

이에 따라 미배치 유아 학부모에게 인공 공·사립 유치원 잔여정원 정보를 제공하고, 국·공립 유치원을 신설·증설할 경우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지난 14일 기준 폐원을 승인 받았거나 신청·검토하는 사립유치원은 116곳으로 파악됐다.

학부모와 폐원을 협의 중인 유치원이 97곳, 지역교육청에 폐원 신청을 한 유치원이 11곳, 폐원 승인을 받은 곳이 8곳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지난달부터 일방적인 유치원 폐원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학부모들을 위해 홈페이지(www.moe.go.kr)에 학부모 고충지원센터를 통해 제보를 받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아 재배치가 완료된 후에 폐원 인가를 내주고 있다”면서 “지난달 이후 폐원 통보 건수가 안정화됐다. 유아 감소 등에 따라 유치원 폐원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단 한명의 원아도 빠짐없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조속한 해법마련이 요구된다. /장은성 기자

2019 평화통일 기원 신년하례회

일시 - 1월 18일(금) 오후 6시(식전공연 5시 30분)

장소 - 전주 르윈호텔 1층 백제홀

주최 - 전주매일신문, 평화통일지도자전북협의회, JJC지방자치TV 전북본부

주관 -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전북지회

내용 - 도내 기관단체장 및 지역유지 신년인사

연락처 - 063-223-6138, 236-1221

